

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유면뉴딜 한국판뉴딜			
보도일시	2022. 1. 5.(수) 조간 *인터넷 2022. 1. 4.(화) 12:00 이후 / 총 10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과 장 송유나 사무관 이재인 사무관 한정희	044-202-7190 044-202-7193 044-202-737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시행 2년째 맞는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,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.



- ◆ 시행 첫해 50.9만명 참여 신청, 42.3만명 지원
- ◆ 2022년 구직노력 지원 및 취업알선, 맞춤형 취업지원 등 서비스 내실화 추진

1. 시행 첫해 운영성과

-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,
 -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므로,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, 장기구직자,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,
 -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,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.

* (취업지원서비스)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

* (소득지원) ▲ I 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, 최대30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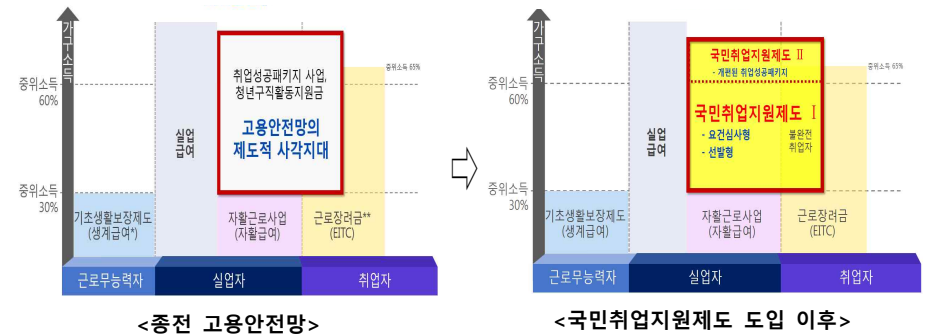
▲ II 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최대195.4만원)

<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>

필요요건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
I 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*	15~69세 (청년은 18~34세)	중위소득 60% 이하	4억원 이하	최근 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이상
		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특례: 120%)	4억원 이하	최근 2년 이내 100일 (또는 800시간) 미만 (청년은 취업경험 무관)
		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: 소득제한 없음)	무관	무관
II 유형				

* 선발형: 예산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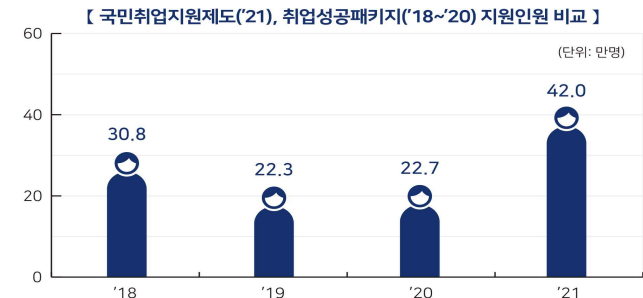
-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·시행되면서,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.



① 적극적 모집·발굴 노력 및 42만명 지원 성과

- 2021년 한 해 50.9만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,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.3만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.

* 취업성공패키지 최근 실적(단위: 만명) ('18) 30.8 → ('19) 22.3 → ('20) 22.7



-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유형 참여자는 34.1만명으로, 이 중 청년은 21.1만명(61.9%), 여성은 18.9만명(55.4%)으로 나타났다.

* 집중홍보의 달(5월) 운영, 인플루언서·관계기관 협업 홍보, 우수사례 확산 콘퍼런스(7·12월)와 지인 추천 이벤트(8월) 등 통해 적극적인 모집·발굴 추진

② 현장의견 토대로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

- 제도 시행 초기, 그간 누적되었던 취업지원 수요가 집중*되었고, 종전 대비 높아진 상담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.

* '21년 1월 신청인원 20만명

- 이에 2021년 한 해 총 60여회의 현장소통을 진행하면서,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과제 발굴에 집중하였다.

그간의 주요 제도개선 경과

- ① (7.27.)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이 취업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**I 유형 선발형 청년특례**(중위소득120%↓ & 재산4억원 ↓) **취업경험요건 폐지** (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)
- ② (9.7.)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**소득(중위 50→60%)·재산(3→4억)요건 확대**
- ③ **자립준비청년·구직단념청년**(‘21.3), **영세자영업자**(‘21.7, 매출액 1.5→3억원 이하), **전역예정장병**(‘21.9) 취업지원 확대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강화

③ 참여자 만족도, 관심도 증가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(‘21년, 노동연구원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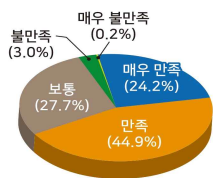
* I 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.5%가 ‘만족한다’고 응답 (‘불만족’ 응답은 3.4%)

- 특히,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.

- 한편, 시행 첫해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(‘21년 11월, 대국민 설문결과).

* 단, 조사대상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움

【청년 만족도】



【국민취업지원제도 관심도】



④ 참여자 참여목적 및 구직촉진수당 사용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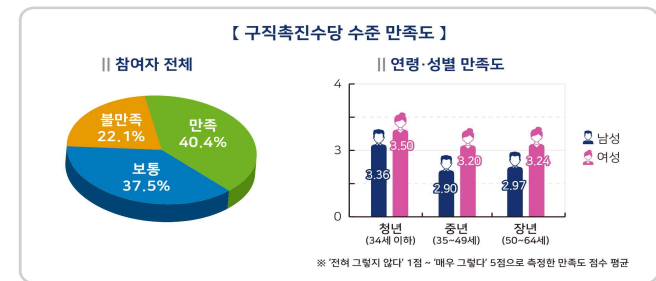
- 설문 결과(‘21년, 노동研), 참여자들은 취업과 소득지원을 목적*으로 제도 참여를 신청하고, 구직촉진수당은 생활비·구직활동비에 주로 쓰이는 등**,

* 구직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(4.05),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(3.99) 등 (5점 만점)

** 주요 사용처: 생활비(76.4%), 구직활동비용(50.3%), 구직 관련 직접 비용(42.8%) 순

-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**실업부조 도입 본연의 목적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** 파악됐다.

-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0.4%로,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

2. 2022년 사업운영 방향

<2022년 지원규모>

-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(본예산 기준 59만명)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명을 지원한다.

- 특히,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(I 유형 40만→50만명), 청년(청년특례 10만→17만명)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.

		’21년 (1.2조원(본예산))		’22년 (1.5조원)	
I	요건심사형	25만명	40만명 *추경 5만명 별도	25만명	50만명
	선발형	청년 10만명 비경활 5만명		17만명	
	특정계층	4만명		8만명	
II	청년	13만명	19만명	8만명	10만명
	중장년	2만명		1만명	

<주요 추진사항>

-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,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서비스 내실화·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.
 - 이를 위해 ①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, ②취업역량 평가 전면개편,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③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①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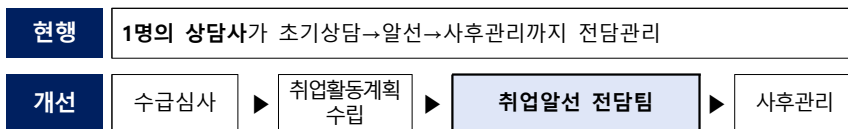
- (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) 2022년부터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·창업할 경우 5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.

-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종전의 취업성공수당* 구조에서,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2022.1.1.부터 새로 도입한다. <22.上 경제정책방향>

*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및 표유형 특정계층 대상: 취업 후 6개월~12개월 근속 시 각 50만원,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(총 150만원)

- (취업알선 강화)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'22년 상반기 고용센터 내에 '취업알선 전담팀'(인천·구미 2개소)과 일자리정보 연계·조정팀(부산 등)을 시범운영하고, 전 지방관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.

< 알선전담팀 시범운영 방안 >



* (취업알선 전담팀) 집중 취업알선이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알선업무 전담

↳ ▲워크넷 + 외부 구인정보(취업포털 등) 발굴·연계 ▲'구인구직 만남의 날' 등 취업알선행사 개최 ▲동행면접 등

- 또한,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'집중취업알선기간'으로 운영하고,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한다.

- (구직의사 확인)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제도로써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*하고, 대면상담(1·4회차 지정일)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한다.

*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, 참여자의 구직노력 의무 등 관련 교육동영상 의무 수강 등

- 한편,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등을 위한 인공지능(AI) 모의면접*('21년, 31개 센터 도입: 인성·역량·외국어면접 유형별 연습 등), 채용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.

- (취업연계 강화)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(22년 신설), 고용촉진장려금** 등과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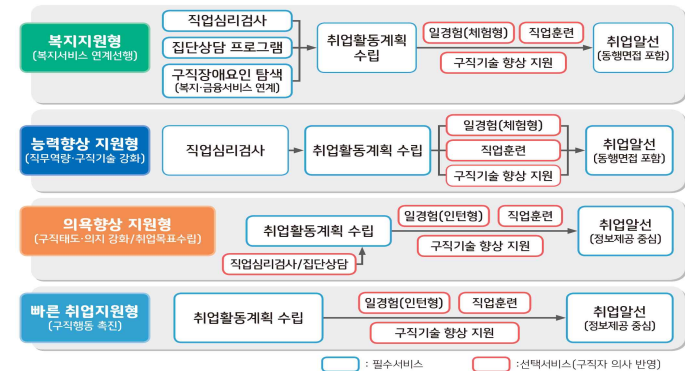
* 중소기업 등이 마취업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청년 1인당 月80만원 年최대 960만원

**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月60만원 年최대 720만원

②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
- 2022년부터 구직의지·역량 등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,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.

* 역량이 낮은 구직자(A·B유형): 구직기술 향상(집단상담 등) 의무화, 직업훈련·일경험 제공
역량이 높은 구직자(C·D유형): 면접클리닉, 알선 등 우선제공 등 상담사 개입·지원 확대



- 아울러, 서비스 제공 표준안*을 마련·보급하여 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,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* 업무 중요도·비용, 수행방식 및 수행주기, 반복성 등 고려 → 상담사가 취업지원 과정에서 자기 점검,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업무 및 절차 마련

③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취업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.
 - 참여자에게 일경험 입사 전(前) 이력서·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,
 -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,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·지원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운영기관도 대폭 확대해,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④ 대상별 모집·발굴 강화

- 서비스 내실화 노력과 함께,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실업자,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 확대 및 콘텐츠를 강화하고,
 -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(취업이름)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, 비대면 상담채널 확대(관계부처 협업) 등 적극적인 모집·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.
-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“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째,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·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.”라며,
 - “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1월5일부터 카카오톡 「취업이름」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.
 - 카카오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을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, ‘이름이’ 캐릭터 이모티콘(붙임1)을 내려받을 수 있다(선착순 8만명).

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
홈페이지(www.kua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붙임1

이름이 캐릭터 이모티콘



붙임2

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

고용노동부

취업을 원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제공 서비스

취업지원

- 취업상담** 직업심리검사 / 구직방향 설정
- 직업능력 향상 지원** 직업훈련, 일경험(인턴, 직장체험),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
- 취업알선** 이력서·면접 클리닉 / 동행면접

*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
**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(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)

I 유형

구직촉진수당 제공

최대 300만원(월 50만원*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
II 유형

취업활동비용 제공

- 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 지급
- 훈련참여수당(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만원 최대 6개월) 지급

참여조건

I 유형

재산 4억원이하

- 15~69세 : 중위소득 60% 이하
- 18~34세 청년층 : 중위소득 120%

II 유형

재산 무관 +

- 18~34세 청년층 : 소득무관
- 특정계층 : 소득무관
- 35~69세 중장년층 : 중위소득 100% 이하

신청·접수 :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kua.go.kr)

문의상담 : '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' 이용 : 카카오톡 채팅창
→ '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' 검색 → 채널 추가 후 이용

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